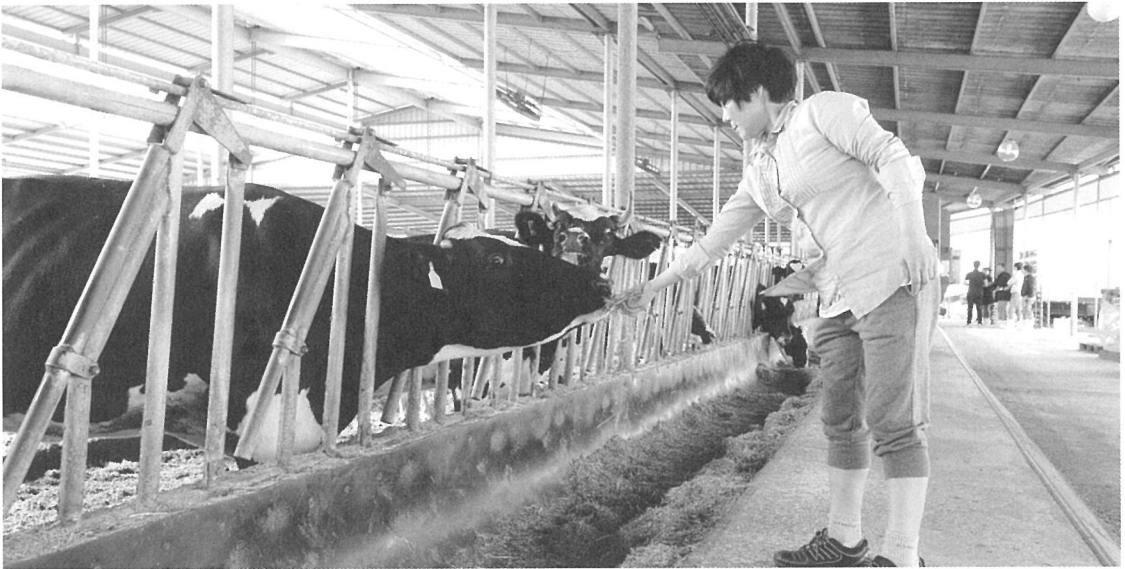


농가기고

잘 만들어진 정책이 있어야 청년을 낙농현장으로 끌어들이



후계낙농인 또는 청년 낙농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다.

가업을 이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을 “後繼者(후계자)”라 칭하고 싶다.

젊고 혈기 왕성한 시기여서 하고 싶은 것에 열심히 도전하는 이들. 그리고 실패란 단어는 두렵지만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도전하는 아름다운 이들. 이를 두고 “靑年(청년)”이라 부른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산업이 존재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당되는 직업이 무궁무진하게 포진되어 있다. 이중에는 사람처럼 생명이 있고 활동적이며 겁이 많지만 반대로 정도 많은 젖소사육이란 산업이 존재한다. 유식한 단어로 “낙농산업”이라 부른다.



이경훈

협회 이사

청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여기서 잠깐! 지금의 농촌 현실에 대해 먼저 논할까 한다.

과거 70, 80년대 농촌은 그야말로 시골벽적인 곳이었다면 현재의 농촌은 너무나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이 흐르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많이 심각한 문제다.

농촌에 살면 수입은 적는데 지출은 많아지고, 문화생활도 힘들다. 청년들이 장가가기도 어려운 현실에 더불어 아기 울음소리도 듣기 어렵게 됐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농촌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부흥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는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크게 4가지의 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산업을 꼽자면 농촌경제의 중추가 되는 畜産業(축산업)을 들수 있겠다.

글쓰기가 13년간 농촌을 지키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안정된 직업으로,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낙농산업!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소득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사회활동!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소득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총각들은 결혼까지도 잘 이어지는 산업이 낙농업이라 느꼈다. 결혼성사는 곧, 아기의 울음소리를 농촌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농촌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낙농산업에 지금은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농촌의 희망을 살리고자 낙농업을 선택했고, 현재와 미래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낙농을 선택하였건만.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과 보금자리를 이루고자 낙농을 선택했는데 국민과 서민의 보살핌은 뒤로 한 채 과거의 규제와 현재의 규제, 그리고 미래의 규제를 더욱 발굴하여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정책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청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 낙농목장을 일구는데 걸림돌이 되는 많은 규제 중에서 몇 가지만 논할까 한다.

첫째, 형평성에 어긋난 낙농정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여러 유업체가 있는데 유업체마다 원유수급조절 방법이 다르다. 그러다보니 어느 유업체에서는 쿼터를 삭감하는데 어느 유업체는 그대로이고, 쿼터 외 원유대금도 리터당 100원만 주는 곳이 있는가하면 300원을 주는 유업체가 있다. 또 일부에서는 유대가

체불되는가 하면, 어디는 연간총량제, 어디는 일 주일총량제를 한다. 이처럼 원유수급조절 방식이 이토록 제각각인데 어느 젊은이가 불안함을 떠안 으면서까지 낙농을 시작하려고 하겠는가.

둘째, 원유단가 이원화를 들 수 있다.

전국 낙농가들이 납유하는 모든 원유는 무항생제 원유다. 또 전국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모든 원유에는 114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동일한 품질의 원유다. 그런데도 무항생제 우유나 유업체별 브랜드화 전략으로 이원화된 우유단

가를 정부가 중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나 낙농가나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노동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든가 확신만 있다면 청년들은 알아서 목장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들이다.

대한민국은 하나인데도 시, 도, 군마다 농업에 적용시키는 정책과 규제가 증구난방이다. 관계당국은 규제를 강화해야만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 여기는 듯하다. 후계낙농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갈수록 축소되어가는 우리 낙농산업이 시름에 빠져 있는데 낙농가를 위해 나서줄 공직자의 부재가 아쉽기만 하다.

사업하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후퇴하듯, 관계당국에서 농촌의 희망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국 낙농가는 무너질 것이고, 연관산업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가와 정부가 합심하여 현장에 가까운 정책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상생이 가능해진다.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목장의 축사를 임대·분양하는 축사은행사업이나 쿼터뱅크, 시설자금 등 청년을 낙농목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글쓴이 역시 가업을 이어 낙농을 시작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목장을 이어가겠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설불리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 낙농산업은 힘들다. 지금이라도 후계자를 육성해 국가 식량산업인 낙농업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청년낙농인이 뜨거운 열정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아직 희망은 있다. ☺

